

기획논문

개항기 신문 매체를 통해 본 공론 개념의 의미장 : 『한성순보』·『한성주보』·『독립신문』을 중심으로*

• 문경득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교수

(ORCID: <https://orcid.org/0000-0001-8065-698X>)

투고일 : 2019.10.21. / 심사완료일 : 2019.11.08. / 게재확정일: 2019.11.18.

요약

공론(公論)이라는 개념은 영어의 'public opinion'과 대응하는 단어로 공론과 공론정치를 다룬 여러 연구에서 다수가 참여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공정성이 확보된 의견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교적 '공(公)'의 개념은 행위에 내재된 도덕성과 관련되어 있어, 행위의 장을 가리키는 서구의 public 개념과 다르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의 공론 개념은 '다수의 토론을 통해 형성된 공정한 의견'이 아니라, '천리(天理)를 따르고 인간의 본연지성(本然之性)에 부합하는 옳은 의견이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하는 의견'이라는 뜻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유교적 공론 개념이 근대적 공론 개념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하고자 개념사 방법론을 적용하여 『한성순보』·『한성주보』와 『독립신문』에 등장하는 공론 개념의 의미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론 개념은 유교적 공 개념에 근거하여 언론을 설명하며 정당화하거나, 만국공론처럼 유교적 에토스에 근거해 국제관계를 이해하고 상상하기도 했다. 또한 근대국가를 지향하면서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유교적 공 개념과 연표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공론 개념의 의미장이 재배치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개념사, 언론, 만국공론, 탈유교화, 공(公) 개념, 재배치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45347). 이 논문은 2019년 8월 22일 『탈유교사회 정치문화의 비판적 사유』라는 주제로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와 한국융합인문학회가 공동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I. 서론

‘공론(公論)’이라는 개념은 『표준국어대사전』 등에서 ‘여럿이 의논함. 또는 그런 의논’, ‘공정하게 의논함. 또는 그런 의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뜻하는 ‘여론(輿論)’과 같은 뜻으로 영어의 ‘public opinion’과 대응한다고 보고 있다. 즉, 현대의 공론 개념 안에는 ‘다수’와 ‘공정’, ‘공통’ 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론’ 개념과 관련해서 주로 ‘공론정치’나 ‘공론장’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역사학계나 사회학계, 철학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¹⁾ 이런 연구에서 언급되는 공론 개념은 주로 ‘다수의 공정한 의견을 뜻하며, 다수의 논의와 토론을 거쳐 공정성이 산출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일정 부분 민주주의를 염두에 두고 공론정치를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경래, 2012:125-126).

이외에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 조선시대의 주요 사료에서 여론과 유사한 용어를 추출해 유사용어와 유형, 주체 등을 분석하면서 공론 개념도 거론한 연구(김영주, 2010)와 『독립신문』과 『대한매일신보』의 논설 말뭉치(corpus)를 활용해 언론과 관련된 개념을 살펴보면서 공론 개념도 함께 검토한 연구(김영희 외, 2011a; 김영희 외, 2011b)도 이와 비슷하다. 즉, ‘공(公) 개념을 서양의 ‘public’ 개념과 같은 것으로 보고 공론 개념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집단인 조정 관리나 사람들이 토론과 비판이라는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수립된 공통의 의견”(김영주, 2010:42, 44-45)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공’ 개념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른 범주를 가리켰으며 조선시대의 유교적 공(公)과 서양의 공(public) 개념은 등가적으로 치환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었다(김유철, 2015). 즉, 유교적 ‘공(公) 개념은 ‘천리를 따르고 인심에 부합(順天理合人心)’²⁾하는 것이다(김경래, 2012:129). 다시 말해 서구적 공(public)과 사(private) 개념처럼 영역이나 행위의 장에 의한 구분이 아니라 행위의 내재적 도덕성으로 구분하고 있다(최석만, 2002).

따라서 ‘공’ 담론의 영향을 받은 공론 개념은 유교, 특히 성리학적 ‘공’ 담론의 영향을 받아 북송 때부터 간헐적으로 쓰이다가 남송 때 주희가 본격적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주창하

1) 김경래, 2012, “조선 공론정치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안 -이이의 공론개념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105, 112-127 참조.

2) 『朱子大全』 권24, 〈與陳侍郎書〉

였다(이상익, 2006). 주희에 따르면 공론은 “천하가 똑같이 옳다고 하는 것(天下之同是者)”, “천하 만 사람의 입에서 한결같이 나오는 것(天下萬口一辭之)”³⁾이라고 정의했다. 율곡 이이도 “사람들이 똑같이 그러하다는 것(人心之所同然者)”⁴⁾이라고 했다. 다만 이러한 공론 개념에 다수를 가리키는 표현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근대적 공론과 다르게 조선시대의 유교적 공론 개념은 ‘다수 도는 전원’이라는 수적 요소와 과정으로서 ‘토론’이라는 소통행위가 필수적이지 않다. “마음이 ‘공(公)’한 상태가 되면 저절로 하나가 된다.”는 정이(程頤)의 말처럼,⁵⁾ 내부적 상태가 ‘공’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하나로 모인 의견이 공론이라고 봐야 한다. 실제로 이이도 ‘사람들이 의논하지 않고도 함께 옳다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공론의 일치는 소통의 과정과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즉, 유교적 공론 개념은 ‘모두가 동의한 의견’이므로 옳다라는 뜻이 아니라 ‘너무나 옳은 의견’이라 모두가 동의한다라는 뜻으로 봐야 한다(김경래, 2012, 134-138).

이와 같은 유교적 공론 개념의 ‘이념형’을 기준으로 보면 현대의 공론 개념은 조선시대의 유교적 공론 개념이 ‘탈유교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즉, 개항 이후 서구적 근대의 영향을 받으면서 공사(公私) 담론이 변화하며 근대적인 공공영역과 공론장이 출현했으며, 공론의 주체로서 근대적 개인이 형성되어 공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조선시대의 공론 개념이 이런 이념형과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다수의 토론을 통한 공정한 논의나 의견을 뜻하는 근대적 공론 개념’으로 변화했는지, 나아가 현대의 공론 개념이 실제로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공론 개념의 실제로 어떤 뜻이었는지 구체적인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념사’ 방법론, 그중에서도 ‘사회사적 의미론’에 토대를 두고 있는 롤프 라이하르트(Rolf Reichardt)의 ‘의미장(Semantic fields)’ 분석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라이하르트에 따르면 ‘개념’은 그 자체로 사회적 생산물이자 자체의 역동성을 지니는 사회적 삶의 요소들이다. 그러므로 당시의 사료에서 개념과 관련된 단어와 사용 범례를 포착하여, 개념을 직접 정의하는 단어 및 이 단어들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 ‘계열관계(Paradigms)’, 개념들을 내용상으로 채우고 설명하고 특징짓는 단어들로 구성된 ‘통합관계

3) 『朱子大全』 권24, 〈與陳侍郎書〉

4) 『栗谷全書』 권7, 〈辭大司諫兼陳洗滌東西疏〉

5) 『二程遺書』 권15, 18줄. “公則一 私則萬殊 人心不同 如面 只是私心”

(syntagmata), 모든 체계적 반대개념으로 구성된 ‘기능적 반의어(Antonyms)’, 역사적 사건, 인물, 원인 등 개념과 관련된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Causes)’의 장으로 구분된 의미장을 설정하고 이를 분석하는 방법론이다(나인호, 2011:82-92). 즉, 사회적 산물인 개념을 분석해 역으로 당시 사회를 재구성하여 ‘과거의 현재’를 살펴보는 연구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연구를 위해서는 조선시대부터 근대까지의 다양한 사료에서 공론 개념을 추출해 의미장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조선시대의 경우, 당쟁과 환국, 탕평을 거치면서 공론이 그저 ‘당론(黨論)’으로 치부되기도 했으므로(김영수, 2015), 당시의 공론 개념도 앞서 예시로 든 유교적 공론의 이념형과 다른 의미장을 보일 수 있으며, 개항기 이후의 근대 공론 개념에서도 현대처럼 탈유교화된 의미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자료의 접근성과 시기적 특성 등을 고려해 박문국에서 발행한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漢城旬報)』(1883-1884)⁶⁾와 『한성주보(漢城週報)』(1886-1888)⁷⁾, 그리고 최초의 한글신문인 『독립신문』(1896-1899)⁸⁾ 등의 개항기 신문 매체로 시기와 대상을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 6) 『한성순보』는 정부기구인 박문국(博文局)이 주관하여 1883년 10월 31일(음력)에 창간하여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 때까지 간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다. 국내 기사보다는 외국 기사가 많으며, 해외 서적과 중국의 『신보(申報)』·『호보(滬報)』·『중외신보(中外新報)』·『순환보(循環報)』를 주로 번역하여 실었고, 이외에 『시사신보(時事新報)』·『동경일일신보(東京日日新報)』·『보지신문(報知新聞)』 등 일본과 기타 여러 나라의 신문 기사를 번역하여 보도하였다(정진석, 2003, “해제 - 漢城旬報·漢城週報와 開化思想”, 동방미디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한민국 신문아카이브(nl.go.kr/newspaper) “신문해제”).
- 7) 『한성주보』는 갑신정변으로 폐간된 『한성순보』를 복간하는 방식으로 박문국에서 1886년 1월 25일에 창간되어 1888년 7월경까지 간행된 신문으로, 일주일에 한 번 발행되었다. 『한성순보』보다는 국내 기사가 늘었지만, 여전히 외국 기사가 비중이 컸다. 신문발간에 필요한 외국 서적은 독일에 의뢰하여 독일 공사관을 통해 구입하였고, 외국 기사는 중국과 일본의 신문을 주로 인용하였다. 중국 신문으로는 ‘보(報)’라고만 지칭한 것이 많으며 이외에 『신보』·『시보』, 『익문보(益聞報)』, 『순환보』 등이 있다. 일본 신문으로는 막연히 ‘일본보(日本報)’라고 출처를 제시한 기사가 많고 이외에 일본 『관보(官報)』·『시사신보』·『가고시마신문(鹿兒島新聞)』·『보지신문』·『동경일일신보』 등을 인용하였다. 『한성순보』보다 일본에서 발행된 신문을 인용한 비율이 높아졌으며, 이밖에 영국의 타임즈(The Times, 泰晤士日報)나 로이터(Reuter, 路透)도 인용하였다(정진석, 2003, “해제 - 漢城旬報·漢城週報와 開化思想”, 동방미디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한민국 신문아카이브(nl.go.kr/newspaper) “신문해제”).
- 8) 『독립신문』은 1896년 4월 7일에 창간되어 1899년 12월 4일 폐간될 때까지 약 3년 8개월간 발행된 신문이다. 체제는 일본신문의 영향을 받아 『한성순보』나 『한성주보』와 다르게 ‘논설’과 ‘관보’, ‘잡보’, ‘광고신문사고’를 기본으로 이루어졌고, 이외에 ‘외국통신’이나 ‘각부 신문’과 ‘전보’, ‘별보’ 등이 때때로 게재되었다. 정부가 막대한 자금과 여러 혜택을 부여하면서 창간한 신문이었지만 형태상으로는 서계필 등이 중심이 되어 민간이 소유하고 발행한 신문으로 한국의 언론사에서 민간지의 효시로 평가되고 있다(채백, 2006, **독립신문 연구**, 한나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한민국 신문아카이브(nl.go.kr/newspaper) “신문해제”).

우선 『한성순보』와 『한성주보』는 주로 외국 자료와 신문을 인용했으므로 공론 개념의 변화에 영향을 끼친 외부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독립신문』은 순한글을 사용한 최초의 민영신문으로, 종래의 양반 등 한문 사용자 이외에 한글을 사용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독자로서 읽었을 뿐만 아니라 투고자로서 참여했다(채백, 2006:154-164). 그러므로 한문으로 기록된 기존의 신문이나 서적이 담아내지 못한 다양한 계층이 사용하는 공론 개념의 의미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894년 갑오개혁으로 본격적인 근대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1898년의 독립협회 활동 등과 맞물려 다양한 논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에 간행된 신문이므로, 개항 이후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변화해가는 공론 개념의 의미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시기별로 크게 1880년대의 『한성순보』와 『한성주보』, 그리고 1890년대의 『독립신문』에서 공론 개념의 의미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공론 개념의 변화와 작동 방식을 통해 당시 사회가 어떻게 근대를 이해하고 무엇을 상상하고 지향했는지 그 일면을 살펴보았다.

II. 개항기 신문 매체의 공론 개념 분석

1880년대에는 『한성순보』가 1883년부터 1884년까지 간행되고 『한성주보』는 1886년에 창간되어 1888년에 폐간되었다. 1890년대에는 1896년에 와서야 『독립신문』이 창간되어 1899년에 폐간되었다. 그러므로 1880년대는 『한성순보』와 『한성주보』를, 1890년대는 『독립신문』을 분석하는 셈이다. 다만 『한성주보』 폐간되고 『독립신문』이 창간되는 약 8년의 기간 동안 청일전쟁과 갑오개혁(1894-1895), 아관파천(1896) 등 조선을 둘러싼 국내의 정세에 큰 영향을 준 사건들이 일어났으므로, 두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의 공론 개념의 의미장을 분석하는 방식도 유효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구분하였다.

1. 1880년대 공론 개념의 의미장

『한성순보』에서는 공론 개념이 등장하는 기사가 12건이고, 『한성주보』는 6건으로 총 18건이다.⁹⁾ 기사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구의 제도와 법률, 문화 등을 소개하는 기사가 5

건, 외신을 번역해 외국 사정을 소개하는 기사가 13건이다. 이중 외국 관련 기사는 베트남을 둘러싸고 일어난 청-프랑스전쟁 관련 기사가 4건이고, 중국과 외국과의 갈등을 다룬 기사가 4건, 프랑스와 마다가스카르의 갈등을 다룬 기사가 2건, 기타 이집트를 둘러싼 영국과 프랑스의 갈등을 다룬 기사가 1건, 만국공법(萬國公法)의 내용 중 국외국(局外國)의 대응방식을 소개하는 기사가 1건이다.

『한성순보』에서 청과 프랑스의 갈등을 소개한 기사와 마다가스카르에 야욕을 보이는 프랑스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면 계열관계에 공도, 신의, 공법 등이 등장하고 있다. (〈Table 1〉)¹⁰⁾ 국제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칙으로서 ‘공법’이 등장하면서 동시에 국제관계의 윤리로서의 신의를 거론하고 있다. 이외에 나머지 7건의 기사에서도 대체로 계열관계에 만국공법이 등장하고 있고, 기능적 반의어에 ‘이익을 탐내는 욕심(利欲)’, ‘간사한 계책(譎計)’ 등 욕망이나 부도덕함을 뜻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

자세한 분석은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만국공론’의 의미장은 전통적인 공론 개념과 다른 모습이다.¹¹⁾ 즉, 전통적인 조공책봉체제와 다른 근대적 국제관계를 여전히 유교적 공 개념에 근거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여전히 전통적 공론 개념의 주요 기준인 ‘옳음’에 대한 관념이 의미장 안에 남아있으나, 판단 기준으로 유교적인 도덕 윤리와 일종의 국제관계를 규정한 법률인 ‘만국공법(萬國公法)’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국제관계를 다루거나 외국 소식이 아닌 기사도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 각각 1건씩 총 2건 있다. 이중 『한성순보』에 소개된 ‘아리스토텔레스전(亞里里斯多得里傳)’ 중 아리스토텔

〈Table 1〉 Semantic fields of ‘International Gongnon’ in the Hansung Sunbo

Paradigms	syntagmata
公道, 人心, 信義, 公法	西人公論, 知事有公論
Causes	Antonyms
Sino-French War, France, 馬達加斯加(Madagascar)	徒逞其強取, 攻城奪地, 欺人而欺自

9) 번역문에는 ‘공론’이라고 표현했지만 원문에는 ‘公論’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기사는 제외하였다.

10) 『한성순보』, “서양인의 公論”(1884.02.27.); 『한성순보』, “盛大한 結婚式을 記錄하다”(1884.06.02.)

11) ‘국제공론’이라는 용어도 가능하겠지만, 당대의 역사적 용어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만국공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텔레스가 스승 플라톤을 비판한 행위를 스스로 변호하면서 “도를 전수한 것은 내 일개인의 우정이고 그 도를 반박하는 것은 만세의 공론이다(傳斯道者, 吾一人之友也 駁斯道者即萬世之公論) … 어찌 나 개인의 사사 友誼 때문에 만세의 공론을 그만둘 수 있겠는가.[鳥敢以一人之私誼, 廢萬世之公論]”라고 한 부분에서 공론이 거론된다.¹²⁾

이 기사에서 등장하는 공론 개념의 의미장은 만세의 공론(萬世之公論)과 개인의 사사로운 우의(私誼)를 대비시키면서 개인적인 친분보다는 ‘진리로서의 공론을 지키는 게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사보다 공을 우위에 둔다는 점은 유교적 공 개념의 영향을 보여주지만, 이때 만세의 공론인 ‘도’는 스승과의 친분보다 중요한 ‘진리’를 가리키므로 행위영역에서 도덕 윤리와의 합치를 추구하는 유교적 공론과 다른 의미장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장은 유교적 지식 기반에서 서양철학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양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서는 대부분 전통적인 공론 개념보다는 서구의 영향을 받은 ‘과도기적인 공론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상이 1880년대의 공론 개념이 이미 이렇게 변화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한성순보』의 뉴스 출처를 확인해보면, 중국 신문에서 가져온 기사는 대체로 번역 없이 그대로 전체해 수록했고, 일본신문의 경우 『한성순보』 발간에 관여한 일본인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 등과 함께 내용을 추려서 게재하거나 일부만 번역하였다(이한섭, 2010:30). 따라서 『한성순보』에 나오는 공론 개념은 당시 중국과 일본에서 사용된 공론 개념임을 알 수 있으며, 『한성주보』도 이와 사정은 비슷했다고 추정된다. 즉, 두 신문에서 보여주는 공론 개념의 의미장은 각각 중국과 일본의 공론 개념의 의미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비교를 위해 『고종실록』에서 『한성순보』와 『한성주보』가 간행되던 시기의 기사들을 살펴보자.¹³⁾ 『고종실록』 중 공론 개념이 언급되는 기사는 1873년(고종 10)부터 1892년(고종 29)까지 총 14건이다. 문서의 성격별로 보면 국내 기사가 12건, 외교 관련 문서가 2건이다.

12) 『한성순보』, “아리스토텔레스傳”(1884.06.13.)

13) 『고종실록』은 조선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일본의 조선총독부에 의해 1935년에 간행되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조선왕조실록에 포함하지 않는다. 편찬과정에서도 원고를 감수부의 총책임자인 경성제국대학 교수에 의해 검열을 받았으며, 최종본은 일본인 이왕직 장관의 결재를 받아 간행되었으므로 전통적인 실록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편찬에 사용된 자료로는 『승정원일기』를 주로 하였고, 이에 더해 『일성록』·『계제사일기 稽制司日記』와 각 사(司)의 등록(謄錄)류, 문집류 등을 활용하여, 개항 이전의 자료는 비교적 원자료에 충실하게 편찬되었으므로 객관적 기록의 정리나 자료 제공이라는 면에서 일정한 의의가 있다(국가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왕대별 해제 : 제 26대 고종실록” - <http://sillok.history.go.kr/intro/haejae.do> (검색일 : 2019.09.30.)).

시기별로는 『한성순보』가 나오기 전인 1882년까지의 기사가 7건, 『한성순보』와 『한성주보』가 간행되던 시기인 1883년부터 1888년까지는 3건, 이후 『독립신문』이 간행되기 전인 1895년 이전까지의 기사는 4건이다.¹⁴⁾

『고종실록』에 있는 국내 정치에 관한 기사 12건은 모두 전통적 공론 개념의 의미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중 이념형인 ‘유교적 공론’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는 총 7건으로, 유교적인 공과 사 관념에 근거해 행위영역에서 도덕적 합치를 거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거제의 문란에 관한 부사과 이유신의 상소에서 나오는 공론 개념의 의미장을 분석해 정리하였다.¹⁵⁾(Table 2) 먼저 계열관계나 기능적 반의어에서 공과 사를 대비시키고 있고, 세력(勢)과 이익(利)을 반의어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통합관계에 ‘산직에 있던 자가 올린 상소(散職之投疏)’와 ‘성균관 유생의 권당(泮儒之掇篋)’처럼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는 표현이 있지만, 합의 절차에 관한 내용은 없으므로 유교적 공론으로 분류하였다.

반면 명확히 옳고 그름이나 유교적 공과 사 관념을 거론하지 않고 다수의 의견을 앞세우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공론’에 해당하는 사례는 5건이었다. 구체적으로 1882년 임오군란 당시 치안을 책임지고 있던 무위대장(武衛大將) 이경하와 장어대장(壯禦大將) 신정회를 도배(島配)에서 위리안치(圍籬安置)로 처벌을 강화하면서 고종은 “공론이 거세게 제기되고 여론을 막을 수 없다(公論峻發, 輿情莫遏)”라고 표현했다.¹⁶⁾ 이외에 정조 때의 『명의록(明義錄)』과 관련된 역적을 용서하는 행위를 비판하는 발언과¹⁷⁾ 영조

〈Table 2〉 Semantic fields of ‘Confucian Gongnon(公論)’ in the Annals of the King Gojong

Paradigms	syntagmata
公道, 公	散職之投疏, 泮儒之掇篋, 可見公論之不可遏
Causes	Antonyms
科擧制 紊亂, 副司果 李有臣, 上疏	一私字, 私心, 勢, 利

14) 『한성주보』 폐간 이후 『독립신문』이 창간되는 시기까지는 본 절에서 설정한 1880년대라는 시기 범위를 일부 넘어서지만, 1890년 이전의 기사가 3건이고 나머지 1건도 1892년의 기사이며, 기사의 성격도 전통적 인 공론이므로 함께 분석하였다.

15) 『고종실록』, “부사과 이유신이 과장의 문란이 지금의 공론을 말해준다는 상소를 올린다.”(1874. 05.09.)

16) 『고종실록』, “이경하와 신정회를 위리안치하도록 명하다.”(1882.08.19.)

17) 『고종실록』, “함경도 육진이 조세를 낼 수 없는 형편이기에 기한을 연기하다.”(1874.05.25.)

때의 신임옥사(辛壬獄事)를 거론하면서 소론을 탄압하지는 내용의 상소¹⁸⁾ 등이 있다.

다만 이 기사들의 경우, 유교적 공과 사의 관념이 명확히 드러내지 않으며, 근대의 기준에서 볼 때 공공영역인 국가정책에 해당하는 사안에 관한 다수의 의견이라는 성격이 강하므로 근대적인 여론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18세기에 있었던 당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외리의 문제 등도 거론되고 있으며, 유교적 ‘공’ 개념에 근거하여 행위영역에 대한 공론을 내세우고 있고, 공론의 주체도 조정 관료나 유생이었다. 또한 공론이 이루어지는 장소도 ‘조정(朝廷)’으로 신하들이 공론을 주장하고 왕이 국사(國是)를 결정하는 정치구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김경래, 2012, 127-134). 그러므로 전통적 공론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고종실록』의 외교 관련 기사 2건은 모두 1885년에 있었던 거문도 사건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기사들에서 사용된 공론 개념은 『한성순보』나 『한성주보』처럼 만국공법의 영향을 받은 의미장을 보인다. 먼저 독판교섭통상사무 김윤식이 영국의 거문도 무단 점령건으로 영국 부영사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하는 기사의 의미장(〈Table 3〉)을 보면 계열 관계에 공법, 즉 만국공법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으로 동맹을 맺은 각 국가에서 성명을 내어 그 공론을 들겠다고 하면서, 일종의 ‘국제공론화’까지도 거론하고 있다.¹⁹⁾

일본 대리공사 곤도 마스키(近藤眞鋤)²⁰⁾가 보낸 비밀 회답편지에서도 공론 개념이 거론되는데,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한 일을 조선이 허락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면 각국에서 의심을 풀고 공론이 귀결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다.²¹⁾ 이 기사에는 공식적인 본국

〈Table 3〉 Semantic fields of ‘International Gongnon(公論)’ in the Annals of the King Gojong

Paradigms	syntagmata
友睦, 公法(萬國公法), 友誼, 義	聲明於同盟各國, 聽其公論
Causes	Antonyms
督辦交涉通商事務, 金允植, 英國, 副領事, 巨文島	默視

18) 『고종실록』, “경기의 유생 김사익 등 206명이 상소를 올려 『춘추』에서 처야 하는 의리에 근거하여 호소하다.”(1889.05.24.)

19) 『고종실록』, “김윤식이 북경주재 서리 흠차 대신 등에게 회답 전보를 보낸다.”(1885.04.07.)

20) 『고종실록』에는 ‘곤도 모토스케’라고 표기되고 있는데, 이는 번역상의 오류로 ‘곤도 마스키’로 바로 잡았다.

21) 『고종실록』, “일본 대리공사 곤도 모토스케가 거문도 문제로 회답편지를 보내오다”(1885.03.29.)

정부의 훈령이 없어 사견(私見)을 밝힌다는 내용만 있어, 국가의 공식적인 의견과 개인의 사적인 의견이라는 전형적인 근대적 공과 사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1880년대 국내 공론 개념의 의미장은 여전히 전통적 공론의 자장 안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근대 국제관계와 관련이 있거나 외국의 신문이나 저작을 인용한 신문 매체에서 거론된 공론 개념은 중국과 일본에서 들어온 것으로, 이 당시에는 서로 다른 의미장의 공론 개념이 각자 다른 영역에서 병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1890년대 공론 개념의 의미장

『독립신문』 중 공론 개념이 언급된 기사는 총 89건이다. 이중 논설이 30건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49건은 국내 정치나 사회에 관한 소식을 다루고 있다. 반면 『한성순보』나 『한성주보』와 다르게 외교 관계기사나 외신 번역, 해외 사건 소개기사의 경우 10건에 불과하다. 시기적으로는 1896년에는 1건에 불과했으나 1897년에는 9건으로 증가했고, 1898년에 40건, 1899년에 39건이다. 이중 논설은 1898년의 기사 40건 중 18건, 1899년의 기사 39건 중 11건으로 전체 기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먼저 1898년에 공론을 거론한 기사 수가 급증한 원인으로 바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활동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독립협회와 관련하여 공론 개념이 거론된 기사는 총 13건이며, 이중 논설이 6건, 논설의 위치에 있는 독자투고가 2건, 정치 관련 기사가 3건, 외교 관련 기사가 2건이다. 만민공동회 관련 기사는 총 5건으로 논설이 4건, 정치 관련 기사가 1건이다. 즉, 공론 개념이 등장하는 기사 40건 중 17건이, 논설 18건 중 12건이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와 관련되어 있다. 이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활동을 통한 개항기 공론장의 확장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²²⁾

1899년에 공론 개념이 거론된 기사 수는 39건인데, 이미 만민공동회는 1898년 12월 23일에 강제로 해산되었고, 독립협회는 12월 25일에 고종의 칙유로 해산된 뒤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공론을 거론하는 기사는 『독립신문』의 성격은 1898년과 다르게 다양한 주제가

22) 다만 이 당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활동과 개항기 공론장에 관해서는 신용하의 『독립협회 연구』 등 역사학과 사회학계에서 연구가 축적되어 있고, 공론 개념의 의미장을 다루는 본 논문의 주제에서 벗어나므로 별도로 서술하지 않았다.

등장하고 있으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정부 정책이나 관리의 행실, 사회의 세태를 비판하는 성격의 기사이다. 대표적으로 논설의 경우, 11건 중 언론 관련된 공론 개념을 거론한 논설이 3건, 현실을 비판하고 개혁을 주장하는 논설이 3건, 사회 세태 비판이 2건이었고 이외에 국제 정세 관련 논설이 2건, 기타 주제 1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 기사도 28건 중 13건이 관리의 행실을 비판하는 기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밖에 정부 정책과 관련된 기사가 8건, 해외 기사가 3건, 사회 비판 기사가 2건, 기타 2건 등이었다.

이러한 『독립신문』의 공론 개념이 등장하는 기사 중 먼저 주목해야 할 표현은 바로 ‘공론하더라’는 표현이다. 『독립신문』은 순 한글로 표기되다 보니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활동과 관련하여 공론 개념의 의미장 안에 ‘공론하더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표현은 ‘개인이 공변된 의견을 말하더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협회나 ‘공동회’가 공론의 주체로 의미장 안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2인 이상의 다수가 논의한다는 의미에 가깝다. 이는 이 ‘공론하더라’는 표현만으로도 이미 의미장 안에 ‘다수’와 ‘논의’라는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독립신문』에 등장하는 독립협회나 만민공동회 관련 기사에 등장하는 공론 개념을 근대적인 공론으로 구분하게 할 수도 있다. 실제로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에서 이미 근대적 공론장이 만들어졌으며, 한국에서 근대 민주주의의 기원이 된다고 보는 연구들도 있다(최형익, 2004; 이동수, 2006 등)

그러나 ‘공론하더라’는 표현은 『독립신문』 이전인 1880년에 리델이 펴낸 『한불주언』부터 등장하고 있다.²³⁾ 리델이 1866년 병인박해를 피해 조선을 탈출한 이후에 이 사전을 편찬했다는 점을 보면 최소한 1866년 이전부터 ‘공론하더라’는 표현이 존재했다고 보인다(하강진, 2016).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공론이 한문으로 기록된 경우에도 보통 ‘있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 ‘有’나 ‘在’ 등의 표현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爲’가 붙거나 ‘公論’이 동사 자리에 있어 ‘공론하다’로 번역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²⁴⁾ 그러므로 ‘공론하더라’는 표현은 이미 개항 이전부터 존재하는 표현이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근대적 공론이라고 보기 어렵다.

23) 황호덕, 이상현 편, 2012, **한국어의 근대와 이중어사전** 1, 박문사, 218.

24)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에서 ‘공론하’를 검색하면 총 15건의 번역문이 확인된다(검색일:2019.09.30.). 원문을 확인해보면 10건은 ‘공의(公議)’ 등 다른 표현을 공론으로 의역한 경우였으나, 나머지 5건 중 4건은 공론을 동사로 사용한 경우였고, 1건은 ‘爲公論’을 ‘공론하다’로 표기했다. 이러한 번역이 보이는 원문자료는 각각 『대동야승(大東野乘)』 중 『웅천일록(凝川日錄)』(1609-1635)과 『혼정편록(混定編錄)』(인조 연간), 『남원현첩보이문성책(南原縣牒報移文成冊)』(1735)와 『동계집(東谿集)』(1741)이다.

또한, 1896년의 협성회와 이듬해 독립협회에서 시작한 토론회의 지향과 성격을 살펴봐도, ‘공론’은 이 때의 표현만으로는 이때의 공론 개념을 근대적 공론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흔히 이들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인 숙의의 문화가 도입되었다고 평가하지만, 당시 토론회에서는 특정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보다는 공개성을 더 중시했다. 이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논의가 사욕을 억제하고 ‘합심’ 혹은 ‘일심’이라는 공변된 상태를 성취하는 방법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당시 토론회의 토론은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토론회 주도자들이 내린 가치판단을 청중과 공유하면서 특정 관점을 관철해 가는 형태였고, 자신들의 주장이 공변됨을 증명하기 위해 만장일치를 추구하였다. 즉, 공변됨과 사사로움을 대비시키는 유교적 공 개념을 토대로 도덕주의적인 관점에서 토론회를 운영하였다(권기하, 2018). 따라서 독립협회나 만민공동회의 활동과 관련해서 비록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는 탈유교화 되어가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설득하는 구조는 여전히 유교적 공 개념에 근거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독립신문』에서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부관리 혹은 지방관을 비판하는 기사에서 등장하는 공론 개념의 의미장에서도 변화가 보인다. 비교를 위해 『독립신문』이 간행되던 시기에 『고종실록』에 실린 관리의 품행비판과 관련해서 공론 개념이 거론된 기사와 비교해보면 서로 의미장의 구성이 다르다. 예를 들어 『독립신문』에서 관리의 품행을 비판할 때, 유교적인 공 개념에 근거한 전통적 공론 개념의 의미장을 보여주는 기사는 초상을 당했을 때의 관리 개인의 효행 문제, 구체적으로는 기복행공(起復行公) 문제를 둘러싼 공론이 거론되는 경우이다.²⁵⁾ 즉, 직접적으로 주제가 유교적 가치인 ‘효’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미장 안의 계열관계에서 ‘렴치’, ‘효심’이 보이고, 기능적 반의어에서는 ‘부익부’, ‘모물 련치’와 ‘벼슬은 탐 호야’ 같은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

반면, 의주 군수의 탐학을 보도한 『독립신문』의 기사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정치적 공론과 다른 과도기적인 ‘개항기 공론’의 의미장을 보인다.²⁶⁾ 즉, 여전히 기능적 반의어에는 ‘사정(私情)’이 있어 여전히 유교적 공 개념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계열관계에서는 유교적 윤리 도덕과 합치하는지보다는 합법적이냐를 더 중시하는 ‘공정과 황법’,

25) 『독립신문』, “상대벼슬”(1899.02.23.) ; 『독립신문』, “니포공론”(1899.02.23.)

26) 『독립신문』, “황법이 지엄 호”(1898.07.18.)

‘법률’ 등의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Table 4).

비슷한 시기의 『고종실록』에 실린 진위대 정위와 참위가 함부로 전직 관료를 총살하고 모욕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요청하는 상소에서는 전통적인 정치적 공론의 의미장을 보여 준다. 즉, 『독립신문』에서 보이는 의미장과 다르게, 계열관계에는 ‘정직하다는 명명(直名)’이나 ‘탐오하는 것과 옳고 그른 것을 논하다(論貪贓是非)’가 있고, 기능적 반의어에 ‘탐오[貪贓]’, ‘모욕한 일(侵辱之事)’, ‘위세를 부리며 포악한 짓을 자행하다(恣行威虐)’ 등이 보인다. 이는 행위의 불법성이나 공권력의 불공정한 행사 등을 지적하기보다는 여전히 유교적 도덕에 근거해 관리의 품행을 비판하는 전통적인 정치적 공론의 의미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인다(Table 5).²⁷⁾

이처럼 관리의 품행 비판이라는 동일 주제의 기사라도 『고종실록』과 『독립신문』이 서로 다른 의미장을 보이는 이유는 발화자와 매체의 차이 때문이라고 본다. 즉, 『고종실록』에서는 대간이었던 사헌부의 전 장령이 작성하여 고종에게 제출한 상소로, 사의(私義)라도 유교적 공 개념에 들어맞으면 공의(公義)로 확장되는 유교적 공사 관념에 근거한 의사소

(Table 4) Semantic fields of ‘Gongnon(公論) of the Open Port Period’ in the Independent News(1896)

Paradigms	syntagmata
항법, 공정, 일정한 법률	공론이 잇다더라
Causes	Antonyms
의주 군수 윤석기, 안주 군수 정필원	탐학, 범장, 사정

(Table 5) Semantic fields of ‘political Gongnon(公論)’ in the Annals of the King Gojong

Paradigms	syntagmata
直名, 是, 論貪贓是非	齎鬱, 公論益激
Causes	Antonyms
前掌令 車有聲, 平壤 鎮衛隊 正尉 閔泳宰, 參尉 千應星, 前校理 趙尙學, 前正言 許綸, 砲殺, 上疏	貪贓, 非, 侵辱之事, 大變怪, 恣行威虐

27) 『고종실록』, “차유성이 민영재와 천응성을 처벌할 것을 청하다”(1898.08.10.)

통 매체였다. 반면 『독립신문』은 국가의 지원으로 창간되었지만, 어디까지나 국가 외부인 민간 영역에서 독자를 위해 발행되었으며, 1898년에는 개화파인 서재필과 윤치호가 주필이었다(채백, 2006:80-85, 96-101). 후술하겠지만 이에 더해 아직은 근대적 저널리즘이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시점으로 『독립신문』은 대간과 같은 전통적인 언론의 역할을 신문의 사명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김영희 외, 2011b:11-13).

이처럼 당시 『독립신문』에서 정부나 관리를 비판하는 기사는 계열관계에 ‘성덕과 같은 유교적 관념과 법률과 관련된 표현 및 ‘충군애국, ‘지주독립’ 등 당대 개화파가 중시했던 관념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기능적 반의어에서는 ‘사스로흔 일, ‘걸주의 도리, ‘참독흔 비와 흥흔 창궐’ 등 비도덕적 품행을 비판하는 유교적 언표들이 등장하고 있다(〈Table 6〉).²⁸⁾

이외에 『독립신문』에 보이는 공론 개념의 다른 유형으로 ‘정부 공론’이 있다. 이 유형은 전통적인 공론 중 ‘정치적 공론’과 유사하게 정부 내에서 논의하는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거론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기사는 총 16건으로, 대부분 잡보에 해당하며 독자가 투고했음을 밝히고 있는 기사가 2건이다. 실제 사례로써 신식 호적과 관련하여 교통 군수 김중기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면, 김중기가 ‘내부의 훈령과 식양대로 신식 호적을 작성해 올리자 내부에서 대신 이하 모든 관원이 칭찬하며 조정 공론에 따라 포상할 것이라고 하면서, 내부의 관리들이 다른 군수들은 중앙 정부의 영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지시

〈Table 6〉 Semantic fields of ‘Gongnon(公論) of the Open Port Period’ in editorials of the Independent News(1896)

Paradigms	syntagmata
공변 됨, 법률 레식, 성덕, 민심, 경계와 소리, 공수, 일편 단심(丹心), 충군 익국, 동심 협력, 충군 익민, 법률, 말 흥논 권리, 혁구도신, 편민 리국, 충성 잇고 어진 사람들	토론, 공론을 세워, 상소, 협회 공론을 시행, 만민이 분격, 의론, 세상 소공지, 독립 협회에서 공론으로 문혁 흥 것, 의론 흥고, 여러 사람의 공론에 용랍지 못 흥출을알고
Causes	Antonyms
의정부 참정 윤희선, 독립 협회 해산 상소, 도약쇼와 중추원 의관, 노륙 법, 만민 직쇼, 조병식	사스로흔 일, 몰 경계, 사형, 압데, 사소 흥 이증, 잔혹흔 법률, 음학흔 수, 걸주의 도리, 혁신중구(革新從舊), 간샤 흥고 독 흥 것, 적약, 참독흔 비와 흥흔 창궐, 불령(不逞)

28) 『독립신문』, “독립협회”(1898.07.05.) ; 『독립신문』, “도약쇼 쇼본 변론”(1898.10.06.) ; 『독립신문』, “만민 직쇼”(1898.11.14.)

에 따르지 않는다고 공론하는 말이 있다고 하고 있다.²⁹⁾

이처럼 ‘정부 공론’의 의미장을 분석해보면 정부 조직 안에서 일어난 논의를 소개하고 있지만, 계열관계에 ‘영칙’이나 ‘법률’, ‘정령’, ‘독립국’, ‘개항’ 등이, 기능적 반의어에는 ‘남의 시비’, ‘풍설’, ‘폐단’ 등이 등장하고 있다. 즉, 유교적 언표들은 보이지 않고, 공 개념의 기준도 유교적이라기보다는 정부의 명령이나 법률, 혹은 개항이나 독립국 등의 관념이 등장하고 있다. 다만 근대적 공론의 주체인 개인이 아니라 조정 내에서 일어난 관리의 공론으로 전통적인 공론장과 영역이 겹치기 때문에 근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과도기적인 유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독립신문』을 중심으로 분석해본 1890년대 공론 개념에서 서구 근대의 영향을 받아 의미장이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활동과 『독립신문』에서 볼 수 있는 개항기 공론장에서 급증한 공론 개념의 의미장에서 중시하는 가치들은 전통적인 유교적 윤리와 도덕에서 근대적인 법률이나 자주독립 등으로 변화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별개로 토론이나 언론과 관련된 공론 개념의 의미장 안에서 주장을 정당화하는 구조와 이때 등장하는 언표들은 유교적 공 개념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III. 개항기 공론 개념 의미장의 변화

본 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중심으로 1880년대의 『한성순보』와 『한성주보』, 1890년대 후반의 『독립신문』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공론 개념의 의미장 변화와 특징을 정리하였다.

1. 유교 기반의 근대 이해와 상상

1) 언론과 공론

전통적인 언론은 삼사(三司), 즉, 사헌부·사간원·홍문관으로, ‘공론’으로 대표되는 조선의 유교적 정치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언론기관은 1894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되면서 사헌부의 기능은 도찰원(都察院)으로 이전되었고, 군국기무

29) 『독립신문』, “이달 십이일 경외 관찰사의 보고가”(1897.02.16.)

처에서는 평민의 상서(上書)를 받아 회의에 부치도록 했다. 그러나 고종 대 언론기관은 언론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홍문기, 2019:170-186).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언론 개념은 개항기 공론 개념의 의미장 안에 남아있었다. 실제로 『한성주보』에서 서양의 신문제도를 소개하는 기사에 등장하는 공론 개념은 성리학에 근거해 작동하는 대간과 같은 전통적 언론에 비유해 신문이 주는 이익을 이야기하면서 거론되고 있다.³⁰⁾ 즉, “임금과 재상의 채택에 제공하고 의원의 취재에 도움을 줌으로써 천하의 변화에 응하고 천하의 일을 달성하게 한다.[備供君相之採擇, 亦資議院之取裁, 以應天下之變, 以成天下之務]”라고 거론하면서 전통적 대간과 연관된 단어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Table 7>).

이를 통해 볼 때 이 당시까지는 아직 전통적인 언론기관 중심의 공론·국시의 관계를 토대로 근대 매체인 신문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는 『한성주보』를 발간하는 박문국 자체가 정부 조직이라는 점도 영향이 있었지만, 신문이라는 근대적 매체는 낯선 개념이었던 반면, 그 역할은 전통적 언론기관과 유사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독립신문』에 나오는 공론 관련 기사에서도 어느 정도는 신문의 역할을 근대적 언론 매체로 보기도 하지만 아직은 대간과 같은 전통적 언론기관의 연장 선 상에서 이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중 언권(言權) 자유를 근거로 신문규칙 제정에 관해 당부하는 논설을 살펴보면(<Table 8>),³¹⁾ 기능적 반의어에서 국가의 탄압과 압제를 경계하는 표현이 있고, 이념관계에서 언권의 자유가 신문을 통해 공론이 나올 수 있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공론 개념의 의미장 안에 등장하는 공과 사의 관념에서 국가라는 공적 영역과 민간

<Table 7> Semantic fields of ‘Gongnon(公論) of the Open Port Period’ in the Hansung Jubo

Paradigms	syntagmata
益, 求言, 制治, 自強, 君民聯爲一體	苦口纒陳, 逆耳忠告, 萬邦共記注, 萬邦共勸懲, 著爲演說, 斷之公論, 輜軒, 下情得以上達
Causes	Antonyms
新聞紙之益	亂日

30) 『한성주보』, “論新聞紙之益”(1886.09.27.)

31) 『독립신문』, “언권 주유”(1899.01.10.)

〈Table 8〉 Semantic fields of 'Gongnon(公論) of the Open Port Period' in the Independent News(1896)

Paradigms	syntagmata
말 하느것이 사림의 특별한 권리, 턴리, 오료의 도리, 언권 자유(言權自由)는 턴싱 권리, 간관, 나무, 북, 국가가 흥황, 국부 병강, 유익 하것	언권 자유 하느 권리를 업시 하면 공론이 업서지고, 언론, 신문이 공론을 통 하느 대로, 빅성의 공론, 공론의 대도, 겨우 싸나는 공론을 업시 하지 말게 하기를 밋노라
Causes	Antonyms
독립신문, 논설, 언권 자유, 신문 조례, 신문 규칙	정부 관인들이 괴탄이 업시 인민을 압제 하야, 압제, 연설에 방자흔 말, 허랑흔 말, 스힘을 인 하야 남의 권리와 명예를 손상, 음담 께설, 학정, 슈치, 무익흔 일

의 신문이라는 사적 영역을 대비시키는 서구적 공사 관념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계열관계에서는 비록 부국강병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간관이나 신문고 등 전통적 언론 개념을 보여주는 표현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공론 개념의 의미장은 근대적 가치인 언권 자유와 이를 위한 신문 매체의 존속이라는 목표를 정당화하기 위해 전통적 언론과 공론 개념을 끌어와 공론과 언론 개념의 의미장을 재구성한 경우로, 근대적 공론장의 창출을 위한 일종의 '서도동기(西道東器)'라고 할 수 있다.

2) 만국공론

전통적인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중화질서' 혹은 '천하질서'라고 할 수 있는 데,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유교적 윤리와 도덕에 근거한 위계적 원리를 천하를 구성하는 일종의 '복합적 행위 주체'인 국가 간의 관계까지도 확대하여 적용한, 이념적이고 상상된 세계이다. 반면 서구의 근대적 '국제질서'는 유럽이라는 특정한 사회에 형성된 질서체제로 복수의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면서 싸우고 공존하는 '경쟁적 공존'이라는 역사적 배경으로 성립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근대의 국제질서는 30년에 걸친 종교 전쟁 이후 '베스트팔렌체제'로 성립된 '주권국가' 간의 관계를 가리킨다(강상규, 2013:243-245). 개항 이후 조선이 접한 국제관계는 바로 이러한 근대적 국제질서였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것처럼 이미 『한성순보』에서부터 근대적 국제관계에 관한 기사에서 거론되는 공론 개념의 의미장은 서구적인 '만국공법'에 근거하면서 동시에 '공도', '신의' 등 유교적 언표들이 등장하고 있다. 『한성순보』는 중국과 일본의 기사를 수용하였으므로, 이러한 만국공론 개념의 의미장은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보인다.

먼저 일본의 '공과 사'는 중국이나 한국과 다르게 상황에 따라 상대적 위상이 변화한다는 특징이 있다. 즉, 천황이 '공'의 극점으로 다이묘는 천황에 대해서는 '사'이지만, 다시 다이묘는 소속된 촌에 대해서는 다시 '공'이 되는 방식으로 서로 상대적이면서 연속적이다. 이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개항한 이후에는 새로 접한 국제사회와 지식체계를 새로운 '공'으로 파악하면서, '국제적인' 혹은 '국제사회에 공인되는', '일반적인', '불변하는', '공공질서적인' 등의 의미가 추가되었다. '공해(公海)', '공리(公理)' 등의 신조어는 이러한 배경에서 나왔다(김유철, 2015).

물론 만국공론의 근거가 되는 『만국공법』은 장로교 선교사인 마틴(W. A. P. Martin)이 한역한 것으로 1864년에 중국에서 가장 먼저 출간되었다. 'international law'의 번역어로 '만국공법'이 채택한 것도 바로 마틴으로 '여러 나라 사이'라는 의미를 담아 '공법(公法)'이라고 번역어를 선정한 뒤, 자연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만국'이라는 단어를 붙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만국공법이 상징하는 국제질서는 대등한 국가 사이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었으므로 '중화질서'를 포기할 수 없었던 중국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없었다. 다만 그 원형적 이미지만 정관잉(鄭觀應)의 『이언』(1880)에서 "공법의 공(公)이란 어떤 한 나라가 그것을 사사로이 할 수 없다는 것이며, 법(法)이라는 것은 각국이 함께 그 법을 행한다는 것"이라고 서술에 집약되어 있다(강상규, 2013:260-276)

반면 일본에서는 바로 다음 해인 1865년에 이 『만국공법』을 수입해 번각본을 간행할 정도였다. 게다가 마틴의 한역본은 기독교 문명과 유교문명의 차이를 고려하여 당시 시대와 상황에 맞게 번역하여 유교문명권에 친화적인 자연법적인 성향이 강했다. 이로 인해 만국공법이 이해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도리(道理)'와 같은 보편원리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일본에서는 만국에 통용되는 보편적인 질서이자 원리로 이해되는 경향을 보였다(강상규, 2013:289-290).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미 1870년대에 오면 이러한 관념이 변화하고 있었다. 즉, 1873년에는 공법 대신 '국제법'이라는 번역어가 나타나고, 후키자와

유키치(福沢諭吉)는 『통속국권론』(1878)에서 근대 국제질서는 힘에 기반을 둔 질서라는 관념을 드러내고 있다(강상규, 2013:303-305).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한성순보』가 간행되던 1883년에 만국공법에 근거한 ‘만국공론’ 개념은 일본보다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의 공론 개념은 중국의 개념사 연구인 ‘관념사 연구’를 통해 확인해보면, 1895년부터 1915년 사이에 공론 개념은 크게 세 가지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그중 ‘공정하며 개인적 이익이 나오지 않는 논평’을 뜻하는 공론 개념은 1880년 이후 … 언급할 때도 쓰였기 때문이다(진판타오, 류칭평, 2010:354-355).

『독립신문』에서도 ‘만국공론’ 개념이 등장하는 기사는 총 8건으로 시기적으로는 1898년이 4건, 1899년이 4건이며 기사 유형별로는 논설이 7건이고 외신 번역이 1건이다. 다만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와 다르게 ‘만국공법’이나 ‘공법’이 의미장 안에 직접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약한 사람의 처신을 빗대어 약한 나라의 처신에 관해 주장하거나,³²⁾ 세계 여러 나라를 동리에 여러 집에 빗대어 국제관계에서 나라의 처신을 주장하는 논설에서는³³⁾ 전통적인 유교적 공사 관념에 따라 개인이나 가족의 사례를 국제관계까지 확장하여 국제관계에서의 처신을 비유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흑황의 부활을 추구하는 ‘잔학한 정부’를 비판하는 논설에서는³⁴⁾ ‘인도(人道)의 통의(通義)’, ‘신의’ 등을 강조하면서 ‘세계 상에 문명된 나라들이 주창하는 ‘만국공론’을 따르라고 주장하고 있다(Table 7).

이처럼 『독립신문』의 ‘만국공론’은 명확히 공법을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서처럼 국제관계에서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써 약한 나라라도 공론에 따라 바르게 처신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주장 자체는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독립신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외교적 대응과 국내 정치를 연결하여 ‘만국공론’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독립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독립신문』의 ‘만국공론’은 유교적 공사 관념이 국제관계까지 확장된 개념이면서도 동시에 ‘문명개화’를 정당화하는 근거였다.

이와 같은 ‘만국공론’ 개념의 출현은 앞서 거론한 것처럼 마틴의 한역본 자체가 유교문명권의 이해를 돕고자 유교적 친화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점과 중국과 조선에서 이 개념을 수

32) 『독립신문』,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 틈에서 대접 받고 사는 것은 그”(1898.03.05.)

33) 『독립신문』, “여러 집에 사는 동리”(1899.04.20.)

34) 『독립신문』, “만국공론”(1898.10.07.) ; 『독립신문』, “대한 정세”(1898.12.16.)

〈Table 9〉 Semantic fields of ‘international Gongnon(公論)’ in the Independent News(1896)

Paradigms	syntagmata
경계, 조리, 공변, 도리, 합심, 인심, 인류의 보통(普通) 권리, 인도(人道)의 통의(通義), 칙유, 민심, 신의[信義], 독립, 타국이 관할, 실심, 국가의 안위, 독립 권리, 민원, 세계 상에 문명훈 나라들, 나라의 명예	세상 공론, 만국공론, 문명훈 나라의 의견, 공중(公衆) 회의, 텃하 공론, 바른 말, 동리 사람들이 공론 하고, 조흔 소문
Causes	Antonyms
약훈 사름, 강훈 사름, 중추원과 도약쇼 상소, 공홍식, 김홍륙, 아라사 공수의 조회, 미국 공수의 조회, 법국 공수의 조회, 덕국 령수의 조회, 인화문전, 부상패, 만민회, 세계 상에 여러 나라들, 훈 동리에 여러 집들이 모혀 사는것	무리, 천대, 압데, 악형, 잔혹훈 법, 야만의 말, 타국의 슈치, 혹독훈 형벌, 학대(虐待), 잔혹 고문(殘酷拷問), 간소빅의 상칙, 빅성 속이기, 잔학훈 정부, 슈치될 일, 언잔훈 소문, 세력과 저리, 괴약 하고 그른 소문

용히는 주체의 유교적 에토스가 서로 조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국제관계에서 공법과 공론을 초월적 규범으로 이해하는 사유에는 유교적 원리와 윤리관이 일정 정도 영향을 끼쳤다. 실제로 근대 국제관계가 동아시아에 관철된 이후, 만국공법과 만국공론의 원리적 공공성이 대국의 폭력과 강제력이 작동하고 소국이 이에 대처하지 못하는 등 폭력을 수반하는 국제관계에서 규범적 공공성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폭력 비판과 주권 보존을 위한 명분이자 도구적 공공성으로 만국공론이 동원되었다. 다시 말해 ‘만국공론’은 권력이 불균형한 국제관계 현실에서 유교적 에토스를 기반으로 ‘상상’된 산물이었다(장인성, 2017:197-209).

2. 근대적 공론 개념의 출현

개항기에 형성된 공론 개념의 의미장 안에서 유교적 공 개념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는 유교적 배경이 존재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현상이었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나 기사가 그대로 소개되는 경우에는 서구적 공사 관념에 따라 영역으로 구별할 수 있거나 절차에 따라 합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정당화가 의미장 안에 포함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한성순보』에서 2건, 『한성주보』에서 1건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국내 기사는 없고 외국의 제도나 지식을 소개하는 기사가 2건, 외국의 사건 기사가 1건이다. 『독립신문』에서는 16건을 확인할 수 있는데, 『독립신문』에서도 주로 외국 사례를 소개하는 기사나 국

내 사회 문제를 거론하는 기사에서 근대적 공론 개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국제여론’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사는 2건으로 먼저 『한성순보』에서 미국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세계 각국 공론에 묻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공론 개념의 의미장에서 공법 등의 단어도 보이지 않아 근대적인 ‘국제여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독립신문』에서는 북경의 영자신문을 인용해 러시아와 영국의 동맹에 관한 풍설을 소개한 기사에서 ‘아라샤 공론’이라는 표현으로 나온다.³⁵⁾

국내 사회 문제에 관한 기사의 경우, 근대적인 공론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의미장 안에서 서구적인 사적 영역과 공론의 주체로서 ‘근대적 개인’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광복 이후에도 개인보다는 국가와 민족이 우선되었다(한승환, 2015:308-309). 심지어 현대 한국의 공사 관념조차도 영역적·기능적 구분과 가치론적·윤리적 구분이 이중적으로 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황병주, 2007:7-8). 그러므로 개항기 신문 매체에 등장하는 공론 개념을 근대적인 공론으로 분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첫째, 의미장 안에서 유교적 공 개념이 약화되었고, 둘째, 만장일치를 벗어나 다양성에 관한 언표가 드러나며, 셋째, 개인을 비롯해 사적 영역이 두드러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한정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기사는 먼저 입헌정치와 삼권분립 등 서구의 정치제도를 소개하면서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정치제도를 경장(更張)하여 ‘널리 회의를 열어 만기(萬機)의 공론을 결정한다(廣興會議, 決萬機於公論).’고 소개하는 기사가 『한성순보』와 『독립신문』에 똑같이 보인다.³⁶⁾ 여기서는 국가의 공공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절차’와 ‘다수’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었기에 근대적 공론이라고 보았다.

근대적인 ‘여론’으로 볼 수 있는 기사는 『한성주보』에 1건, 『독립신문』에서는 10건이 보인다. 『한성주보』에서는 중국 하문(廈門)의 아편무역 사례를 소개하면서 거론되었는데,³⁷⁾ 공과 사의 관념도 전통적이지 않고, 하문의 상인과 백성의 의견만 거론되고 있다. 즉, 공론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영역도 민간이며 주체도 민간의 백성 다수가 거론되고 있는 경우이다. 『독립신문』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4건의 기사에서 외국의 여론(public opinion) 개념이 그대로 들어왔다고 보인다. 반면 국내 소식을 거론하는 6건 중 3

35) 『독립신문』, “아영 동팅”(1898.07.02.)

36) 『한성순보』, “歐米立憲政體”(1884.01.30.); 『독립신문』, “일본 개화 기효”(1898.12.06.)

37) 『한성주보』, “廈門洋藥近信”(1887.02.07.)

건은 경제영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공론을 소개한 기사들이다. 즉, 전당국의 행패에 관한 공론이나³⁸⁾ 금광 이권을 독일인에게 넘기면서 손해가 발생했다라도 이걸 세금으로 보전해 줄 수 없다는 공론,³⁹⁾ 상납을 위해 올려보낸 쌀 때문에 서울의 쌀값이 폭락할 것이라는 공론⁴⁰⁾ 등을 소개한 기사에서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익과 손해의 관점이 두드러지므로 근대적 ‘여론’으로 분류하였다.

이밖에 『독립신문』에서는 공론 개념이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부정적 공론’도 3건이 보인다. 이미 조선 후기에 당쟁이 격화되는 시점부터 공론은 상대화되기는 했지만, 여기서는 아예 부정적 행동에 대한 논의도 ‘공론’으로 칭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러시아 고문관을 해고하는 일에 반대하며 부산 사람 권동수 등이 외국을 붙잡자는 상소를 하지는 공론이 있었다는 기사에 나오는 공론 개념이 그러한 사례이다.⁴¹⁾ 이외에 만회사의 복권 발행 이후 복권 당첨하면 당장 큰 부자가 된다고 하면서 거리마다 그 공론을 한다는 기사나,⁴²⁾ 인천항 청국상인들이 ‘백동전’을 거부하자고 저희끼리 공론했다는 기사도 이 유형에 해당한다.⁴³⁾ 이처럼 의미장에서 옳음의 기준이 아예 빠지면서 부정적인 논의조차 공론이라 칭하고 논의하는 영역도 민간 영역의 일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공 개념이 유교적 관념에서 벗어나고 있는 사례일 뿐만 아니라 현대어의 ‘뒷공론’, ‘속닥공론’, ‘헛공론’ 등과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근대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3. 근대국가 지향의 유교적 정당화

이처럼 조선은 개항 이후 개화파를 중심으로 서구의 지식을 받아들여 노력했고, 이는 『한성순보』부터 외국 서적과 신문을 인용해 소개해왔다. 이후 1894-1895년의 갑오개혁을 거치면서 조선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근대국가로 전환하고자 했고, 『독립신문』에서 보이는 1898년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운동 또한 그러한 근대국가 지향의 다른 측면이라고 할

38) 『독립신문』, “서울 각처 전당국 팔십여처에서”(1897.05.04.)

39) 『독립신문』, “공론불일”(1899.01.26.)

40) 『독립신문』, “곡가지홀”(1899.09.15.)

41) 『독립신문』, “우리 대한 정부 모든 대신내와 전국인민이”(1898.03.19.)

42) 『독립신문』, “알슈업다”(1899.06.22.)

43) 『독립신문』, “청인상황”(1899.09.25.)

수 있다. 예를 들어 독립협회에서 올린 상소문의 경우 공론의 필요성과 절차 등에 대해 거론하면서 바른 정치를 위해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나라마다 공론을 가지고 백사를 하는데 대한은 공론하는 사람들이 없는 고로 정부에서 세상 공론이 어떠한지 알 수도 없고 또 공론이라 하는 것은 공변되어야 공론이거늘 그저 사랑에나 모여 한두 사람이 말하는 것은 공론이 아니라. 그런 고로 나라마다 인민들이 모이는 처소가 있어 여럿이 규칙 있게 모여 정제하게 만사를 토론하여 좌우편 이야기를 다 들은 뒤에 작성한 의논이 공론이라. 이런 공론 하는 인민들이 있을 것 같으면 정부에서 일하기도 쉽고 또 하는 일을 그르칠 이가 없는지라. 대한 관인들이 국사를 그릇 드리려고 짐짓 하는 사람은 없을 듯 하나 그르치는 일이 많이 있는 것은 공론을 모르고 다만 한두 사람의 말만 듣고 하는 고로 낭패를 많이 보고, 또 규칙이 없이 의논을 하게 되면 공변된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고로 나라마다 각색 회가 있어 회에서 규칙 있게 의논하여 작성한 일은 대개 공변될 밖에 수가 없고, 여럿이 의논하여 작성한 일은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의 소견으로 작성한 것보다 낭패성이 없을 터이라. 처음으로 대한에 독립 협회가 생겨 ... 위국 위민 하지는 목적으로 의논을 하여 인민의 지식을 넓히고 또 공론을 만드니 ...44)

이상의 인용문에서 추출한 의미장(〈Table 10〉)을 보면, 다른 기사들보다 상세하게 장소의 공개성과 의논에 있어 규칙 및 절차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공론 개념은 앞서 검토한 것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강연과 토론을 통해 결론을 귀일시켜 ‘공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유교적 공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나라를 배에 비유하면서 ‘배에 있는 사람이 함장의 말에 따라 귀일히 공론하고 일심하여 살기를 도모해야 한다’⁴⁵⁾거나, 나라 다스리는 것을 집 다스리는 것에 비유하며 ‘정부와 백성이 일심이 되어야 한다’⁴⁶⁾고 주장하는 논설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일심’ 또한 의견이 공(公)하면 저절로 의견이 하나로 모인 ‘공론’이 될 것이라는 유교적 공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44) 『독립신문』, “독립 협회 회원들의 상소 소본을 좌에 그치 호노라”(1898.02.24.)

45) 『독립신문』, “유 지각한 사람의 호는 말을”(1897.03.11.)

46) 『독립신문』, “일심에 있는 것”(1899.05.09.)

〈Table 10〉 Semantic fields of ‘Gongnon(公論) of the Open Port Period’ in the Independent News(1896)

Paradigms	syntagmata
옷 하나님께서 우리 대항에 폐하의 붓치신 큰 권, 단장(典章)과 법도, 공변, 위국 위민, 인민의 지식	빅성의 불음, 인민들이 모이는 처소가 있어 여럿이 규칙 있게 모여 정제 하게 만사를 토론, 좌우편 이야기를 다 드른 뒤에 작성한 의논, 공변된 말
Causes	Antonyms
독립협회, 상소, 사소(寫疏) 위원 이병목, 봉소(奉疏) 위원 이무영, 독소(讀疏) 위원 정교, 독비(讀批) 위원 신면후	풍설(風說), 한 두 사람이 말 하는 것, 규칙이 없이 의논

그래도 “모두가 동의하리라는 잠재적 가능성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실제 동의를 구했다는 점, 공변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가시화하고자 한 점, 이렇게 스스로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권기하, 2018:30-34). 다시 말해, 『독립신문』을 통해 공론 개념의 의미장에서 공론의 작동 방식과 공론장의 범위가 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독립신문』의 정치 관련 공론에서는 “링즈의 말슴에 사름은 진퇴 흐는디 좌우와 제대부의 가불가문 듯지 말고 국인이 기왈 가불가라 흠을 드르라 흐섯스나...”⁴⁷⁾라는 『맹자』의 문구를 인용하면서 자신들의 발언과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 『맹자』의 문구는 『독립신문』 논설은 물론, 중추원 부의장이 된 윤치호 등이 올린 상소,⁴⁸⁾ 고영근이 올린 상소⁴⁹⁾ 등에서도 독립협회의 활동을 정당화하는 유교적 연표로서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도 국가와 정치에 관한 논설과 기사에서 등장하는 공론 개념의 의미장에서 공통으로 존재하는 지향점은 바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근대국가’였다. 그렇기에 유교적 공 개념과 연표를 활용해 독립협회의 ‘공론’을 정당화하면서도 ‘자주독립’이나 ‘충군 애국’⁵⁰⁾ ‘애군 위국’¹⁾ 근대적 국가를 지향하는 ‘정치기획’의 의도가 담긴 단어들이 공 개념의 의미장 안에 존재

47) 출처는 『맹자』, 〈양혜왕 下〉 7장으로 원문은 “國人皆曰 賢然後 察之 見賢焉然後用之 … 國人皆曰 可殺然後 後察之 見可殺焉然後殺之 ”이다.

48) 『고종실록』, “윤치호 등이 심상훈, 민영기 등의 죄를 규탄하는 상소를 올린다”(1898, 10, 25.)

49) 『고종실록』, “고영근이 민회를 승인할 것을 청하다”(1898, 11, 17.)

50) 『독립신문』, “우리 대한 정부에서 충군”(1898, 03, 17.)

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념들은 독립협회가 상소와 만민공동회 등을 통해 ‘공론’을 내어 언론 등의 권리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근대국가를 지향하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곽금선, 2018).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역으로 고종의 권력을 강화하여 전제적인 대한제국의 수립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유교적 공 개념처럼 가치론적·윤리적 구분에서 공은 언제나 사에 대해 절대적인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국가의 독립이 위태로워지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민족 담론이 개인 담론을 억압하고 지배했다. 이는 제국주의적이고 강제적인 근대적 지배의 일면이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구축된 공의 관념과 공공성 자체가 국가 공권력과 결부된 ‘국가적 공공성’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한승완, 2015).

또한 여기서 서구적인 공사 관념에 따른 영역의 분화가 가치론적·윤리적 구분 위에 중첩되어 있는 현상도 보이는데, 이는 조금 뒤 시기의 사례지만 1900년대 초에 ‘공’ 개념과 관련된 ‘공덕(公德) 개념의 수용양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의 ‘개신유학자’들은 여전히 ‘공덕’을 개인보다는 집단이나 사회, 국가에 이익을 주는 생각과 행위로 이해했다. 즉, 가치론적·윤리적인 구분이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유교적인 공 개념이지만, 그 중심에는 국가와 민족, 그리고 공익이 자리 잡고 있었다(정육재, 2014:119-120)

이처럼 근대국가라는 새로운 지향을 익숙한 방식인 유교적 공 개념의 구조와 연표로 정당화하는 시도와 서구적 공사관념에 따른 영역의 분화가 중첩되는 현상은 개항기부터 공론 개념의 의미장을 구성하는 여러 관념들이 근대의 영향으로 ‘재배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론 개념의 의미장 안에 여전히 유교적 연표가 남아 있다더라도 공론 개념 자체는 ‘탈유교화’ 되기 시작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IV. 결 론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유교적 개념 중 하나인 ‘공론’이라는 개념은 행위에 내재된 도덕성과 관련되어 있어 서구의 public 개념과 다르다. 그런데도 근대의 개념을 소급해 적용하고 있어 실제로 유교적인 공론 개념이 어떻게 근대적 공론 개념으로 변화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개념사 방법론을 적용해 『한성순보』, 『한성주

51) 『독립신문』, “황제 폐하께서 협회를 대 헌사 조곰도 미안 헌신 하교는”(1898.07.22.)

보』와 『독립신문』이라는 신문 매체에 보이는 공론 개념의 의미장을 분석하여, 개항기 공론 개념의 구체적인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1880년대의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의 공론 개념은 대체로 전통적이고 유교적인 공론보다는 ‘만국공론’처럼 근대의 영향을 받은 과도기적 의미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중국과 일본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번역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비교를 위해 『고종실록』의 공론 개념의 의미장을 살펴보면 국내의 공론 개념은 아직은 전통적이고 유교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1890년대의 『독립신문』 기사 중 1898년에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영향으로 공론 개념이 거론된 기사의 수가 급증했다. 또한 이들의 활동에서 ‘공론하다’라는 표현이 보이지만 이 표현만으로는 ‘다수의 논의’라는 의미를 내포한 근대적 공론으로 볼 수 없었다. 1899년에는 정부나 관리, 사회 비판 기사의 영향으로 공론 개념 관련 기사가 많았는데, 『독립신문』의 비판 기사는 법률이나 자주독립을 중시했고 매체도 신문이라는 점 등에서 같은 시기 『고종실록』에서 보이는 전통적 공론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언론과 관련된 공론 개념은 전통적인 대간의 역할에 빗대어 근대적 매체인 신문의 역할과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었다. 또한 근대적 국제질서에 대해서도 유교적 에토스에 기반해 공법과 공론을 초월적인 규범으로 이해하는, 만국공론이라는 ‘상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서구적 공사 관념에 근거한 근대적 공론과 여론, 국제여론과 옳음에 대한 관념이 사라진 부정적 공론 등의 유형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정치를 거론한 공론 개념에서 근대국가를 지향하는 ‘자주독립’, ‘충군애국’ 등의 표현이 보이나,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유교적 공 개념과 연표를 끌어오는 시도와 개항기 공론 개념에서 서구적인 공사 관념에 따른 영역의 분화가 가치론적·윤리적 구분 위에 중첩되어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개념사 방법론을 적용해 개항기 신문 매체인 『한성순보』와 『한성주보』, 그리고 『독립신문』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으며, 이를 통해 1880년대와 1890년대 공론 개념의 의미장에서 근대적 가치를 지향하면서도 유교적 공 개념과 연표를 끌어와 정당화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유교적 공론 개념의 의미장을 구성하는 관념이 근대의 영향을 받아 ‘재배치’되는 양상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이러한 의미장의 재배치가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 통시적·공시적으로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고종실록』-sillok.history.go.kr(검색일 : 2019.09.30.)(The Annals of the King Gojong -sillok.history.go.kr(date of searching:2019.09.30.)

『맹자』[Mencius]

『栗谷全書』[The writings of Yulgok]

『二程遺書』[The Compilation of the Works of the Ch'eng Brothers]

『朱子大全』[The Grand Collection of Chu-tzu's Writings]

『한성순보』, 『한성주보』, 『독립신문』 - 대한민국 신문아카이브(nl.go.kr/newspaper) (검색일: 2019.09.30.)(Hansung Sunbo, Hansung Jubo, The Independent News(1896) - The archive of Korean newspaper(nl.go.kr/newspaper)(date of searching:2019.09.30.)

한국고전종합DB - db.itkc.or.kr(검색일: 2019.09.30.)(The Comprehensive Database of translation of Korean studies] - db.itkc.or.kr(date of searching:2019.09.30.)

<논문 및 단행본>

곽금선. 2018. “1898년 독립협회의 정치기획과 ‘충군애국(忠君愛國)’”, 역사와 현실 107, 375-408[GWAK Geum-seon. 2018. “Political inventions of the Independence Club in 1898 - The notion of ‘Serve the King and Love the Country (Chung’gun Aeguk, 忠君愛國)’”, Quarterly review of Korean history, 107, 375-408]

권기하. 2018. “합심의 공론장 -1896~98년의 토론회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20, 7-40[KWON Ki-ha. 2018. “The Public Sphere for Unity”, *sahoewa yeoksa*, 120, 7-40]

김경래. 2012. “조선 공론정치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안 -이이의 공론개념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105, 107-147[KIM Kyung-rae. 2012. “Critical Review and Suggestion about Politics of Gonglun in Joseon Era- Focusing on Yulgok Yi I’s Conception of Gonglun”, *The Review of Korean History*, 105, 107-147]

김영수. 2015. “조선시대 언론의 공정성 -공론정치론과 그 한계”, **정치와 평론**, 17, 1-30[KIM Young-soo. 2015. “The Press` Publicness in Chosun Dynasty: Politics by Public Opinion and its Limit”, *Journal of political criticism*, 17, 1-30]

김영주. 2010. “조선시대 공론 연구 -여론 유사용어와 관점, 유형과 형성주체, 그 용례를 중심으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14-1, 41-73[KIM Young-ju. 2010. “Chosun Dynasty’s Public Opinion : Similar Concepts, Perspectives, Creating Classes, Examples”, *Locality & Communication*, 14-1, 41-73]

김영희, 윤상길, 최운호. 2011a. “대한매일신보 국문 논설의 언론 관련 개념 분석 -대한매일신보 논설 코퍼스 활용 사례연구”, **한국언론학보**, 55-2, 77-102[KIM Young-hee, YOON Sang-kil, CHOI Woon-ho. 2011a. “The Concept Analysis related to Journalism of the Korean Editorials in The Daehan Maeilsinbo : A Case Study of the Corpus Utilizat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5-2, 77-102]

- 김영희, 최운호, 윤상길. 2011b. “독립신문 논설의 언론 관련 개념 분석 -독립신문 코퍼스 활용 사례연구”, **한국언론학보**, 55-5, 5-29[KIM Young-hee, CHOI Woon-ho, YOON Sang-kil. 2011a. “The Concept Analysis Related to Journalism of the Editorials in The Independent (The Doklip Shinmoon): A Case Study of the Corpus Utilizatio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5-5, 5-29]
- 김유철. 2015. “공과 사”, 서울대 역사연구소, **역사용어사전**,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113-127[KIM You-cheol. 2015.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Historical Research. “Public and Private”, *Dictionary of Historical Terms*,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shing Council, 113-127]
- 이동수. 2006. “『독립신문』과 공론장”, **정신문화연구**, 29-1, 3-28[LEE Dong-soo. 2006. “The Independent and Public Sphere”,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9-1, 3-28]
- 이상익. 2006. “정치적 정당성의 유교적 근거 -천명·민심·공론”, **유교문화연구**, 7, 241-287[LEE Sang-ik. 2006. “Confucian Theory of Political Legitimacy : the Mandate of Heaven, the Will of the People and the Public Opinion”, *Journal of Confucian Philosophy and Culture*, 7, 241-287]
- 이한섭. 2010. “개화기 일본 신문명 어휘의 도입에 대하여 -漢城旬報를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30, 23-47[LEE Han-seop. 2010. “About the acceptance of a Japanese vocabulary in Hansungsunbo”, *The Journal of Japanese Studies*, 30, 23-47]
- 장인성. 2017. “주권과 공공성-대한국의 경험과 관점”, **동아시아 국제사회와 동아시아 상상-한국국제정치사상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177-211[JANG, In-sung. 2017. “Jugwongwa gonggongseong/geundaehanguigyeongheomgwa gwanyeom”, *Imagining international society in East Asia*,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shing Council, 177-211]
- 정옥재. 2014. “한말 유럽의 공사(公私) 인식 -공덕(公德)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93, 93-126[JUNG Uk-jae. 2014. “Confucian scholars’ understanding of the “Public and Private(公私),” during the latter half period of Joseon - Regarding the Concept of ‘Public Virtue(公德)’”. *Quarterly review of Korean history*, 93, 93-126]
- 정진석. 2003. “해제 - 漢城旬報 · 漢城周報와 開化思想”, 동방미디어 - [http://www.koreaa2z.com/viewer.php?seq=88\(검색일:2019.09.30.\)](http://www.koreaa2z.com/viewer.php?seq=88(검색일:2019.09.30.))[JUNG jin-seok. 2003. “haeje - Hanseong sunbo · Hanseong jubowa gaehwasasang”, donghangniedio - [http://www.koreaa2z.com/viewer.php?seq=88\(date of searching::2019.09.30.\)](http://www.koreaa2z.com/viewer.php?seq=88(date of searching::2019.09.30.))]
- 최석만. 2002. “공공과 사私 -유교와 서구 근대 사상의 생활 영역 비교”, **사회사상과 문화**, 5, 5-22[CHOE Sug-man. 2002. “The Public and the Private: A Comparison of Confucianism and Modern Western Social Thoughts on the Dimensions of Life”. *Journal of East Asian social thoughts*, 5, 5-22]
- 최형익. 2004. “한국에서 근대 민주주의의 기원 -구한말 『독립신문』,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활동’”, **한국학**, 27-3, 183-209[CHOI Hyung-ik. 2004. “The Origin of Modern Democracy in Korea: The Independent, Independent Club, and Peoples’ Mass Meeting”,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7-3, 183-209]
- 하강진. 2016. “표제어 대역 한자어의 탄생과 『한불자전』의 가치”, **코기토**, 80, 107-143[HA Kang-jin. 2016. “The origin of Chinese character in bilingual edition as the Headwords and the value of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Cogito*, 80, 107-143]
- 한승완. 2015. “한국 근대 공론장과 개인의 문제”, **사회와 철학**, 30, 291-312[HAN Seung-wan. 2015. “Korean Modern Public Sphere and the Problem of Individuality”, *Social Philosophy*, 30, 291-312]

- 홍문기. 2019. “1864-1894년 言官 및 言官言論의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HONG Mun-ki. 2019. “1864-1894nyeon eongwan mit eongwaneollonui byeonhwa”,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thesis]
- 황병주. 2007. “식민지 시기 ‘공’ 개념의 확산과 재구성”, **사회와 역사**, 73, 5-44[HWANG Byoung-joo. 2007. “The diffusion and reconstruction of the idea of “Gong”(公) during the colonial period in Korea”, *sahoewa yeoksa*, 73]
- 강상규. 2013. **조선정치사의 발견 -조선의 정치지형과 문명전환의 위기**, 창비[KANG Sang-gyu. 2013. *Joseonjeongchisaiui balgyeon -joseonui jeongchijihyeongwa munmyeongjeonhwantui wigi*. changbil]
- 나인호. 2011. **개념사관 무엇인가 -역사와 언어의 새로운 만남**, 역사비평사[NA In-ho. 2011. *gaenyeomsaran mueosinga -yeoksawa eoneoui saeroun mannam*. yeoksabipyongsal]
- 진관타오, 류칭핑. 2010. **관념사관 무엇인가 1 - 이론과 방법**, 양일모, 송인재, 한지은, 강중기, 이상돈 옮김. 푸른역사|JIN Guantao, LIU Qingfeng. 2010. *gwannyeomsaran mueosinga 1 - irongwa bangbeop*. YANG Il-mo, SONG In-jae, HAN Ji-eun, KANG Jung-ki, LEE Sang-don. pureunyeoksa]
- 채백. 2006. **독립신문 연구**, 한나래[CHAE Baek. 2006. *dongnipsinmun yeongu*, hannarae]
- 황호덕, 이상현 편. 2012. **한국어의 근대와 이중어사전 1**, 박문사[HWANG Ho-duk, LEE Sang-hyun. 2012. *hangugeoui geundaewa ijungeosajeon 1*, bangmunsa]

문경득

고려대 한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전주대학교에서 한국사(정치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주대 한국 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HK연구교수로 재직하면서 ‘유교문화의 탈영토화, 공존의 인간학과 미래공동체’라는 아젠다를 연구 중이다. 주요 연구로 “전라도 지역 무신란(戊申亂) 연구”(전주대 박사논문, 2017)와 “무신란(戊申亂) 당시 남원·태인 지역 반란군의 임실 집결과 특징”(전북사학, 2018) 등이 있다.

E-mail: 2003kd@gmail.com

Abstract

Review of the Semantic Field about Concept of Gongnon(公論)
through the Newspaper Media in the Open Port Period
: Focus on Hansung Sunbo, Hansung Jubo, and The Independent News(1896)

MUN Gyeong-Deuk
Research Prof. Jeonju University

The term Gongnon(公論) used in modern Korean can be translated into ‘public opinion’ in English. However, the traditional concept of Gongnon in Joseon Dynasty meant ‘the opinion approved by everyone because it observes the law of nature and accords with the human nature’. This study analyzes the concept of Gongnon in Hansung Sunbo, Hansung Jubo, and The Independent News (1896), applying the conceptual historical approach in order to trace the process of de-territorialization of Confucian concept of Gongnon to its modern concept. As a result, the concept of Gongnon is explained and justified by the modern media based on the Confucian concept of Gong (公). This concept, like the International Gongnon, also understood and imagined international relations based on Confucian ethos. Finally, The concept of Gongnon justified its goal by citing Confucian ideas and expressions in pursuit of modern nations, and relocated the Semantic field of concept of Gongnon as well.

[Key Words] The conceptual history, Modern media, International Gongnon(公論), De-territorialization of Confucianism, Concept of public(公), Relocation